

2015년도 공모사업 분야별 심의 총평

• 시각예술 분야	1	• 전통예술 분야	8
• 무용 분야	4	• 다원예술 분야	10
• 음악 분야	6	• 공연예술행사	13
		•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16

시각예술분야

- 일시 : 2014. 12. 17(수) 10:00~22:00
-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 집 다목적실
- 심의위원 : 고충환, 김성연, 심상용, 양정무, 정귀원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5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시각예술분야 지원심의위원회는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 '시각예술행사지원', '시각예술비평연구활성화사업지원',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노마딕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등 총 8개 유형의 사업을 신청받아 심의하였다. 8개 사업유형의 총지원신청 건수는 344건, 지원신청 총액은 13,617백만 원이었다.

심사과정은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건의 지원신청서, 포트폴리오 등의 사업계획자료 일체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는 신청사업에 대한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전체 토론을 통해 지원심의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각 채점을 하였고 채점결과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하였다.

2. 사업유형별 심의평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지원>

대안공간과 사립미술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본 사업에는 총 77건이 접수되어 36건을 지원결정 하였다. 각 공간이 가지는 빈익빈 부익부의 구조적 한계와 대안공간의 현재 위상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다.

대안공간의 경우, 기존활동이 정체되어있거나 환경 변화가 커서 과거와는 달리 활동상황을 관망해야하는 곳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축소하였고, 대신에 신규진입 장벽은 낮춰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공간을 신규 선정하였다. 대안공간

과 관련한 논의는 지금도 정체된 활동 속에서 여전히 대안인가 하는 문제제기와 함께, 그럼에도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일부 대안공간의 경우, 전년도 결과보고서가 미제출된 상태이거나 최초 계획이 축소되는 등 제출한 사업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낮은 평점을 받거나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립미술관의 경우, 기업 관련 미술관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지역의 다양한 미술환경 조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거점 미술관과 대안적 성격의 공간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였다. 다만 지역 사립미술관은 전시내용의 질적 수준을 좀 더 향상시키고 사업을 전문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시각예술행사지원>

시각예술행사지원사업은 총 42건의 사업이 신청되었으며 그 중 11건을 지원결정 하였다. 전국 규모의, 전문가와 비전문가, 미술 이해당사자와 일반 대중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의미가 있고 내실이 있는 행사가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 심의였다. 특별한 담론생산 없이 일반적인 단체전이나 그룹전의 신청이 다소 줄긴 했으나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대규모 국제전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새로운 비전이 없는 경우에 탈락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전시든 행사를 그 개념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사업들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계획이 충실히 경우에도 그 실현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와, 계획만 있고 결정된 사항이 없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점을 받거나 아예 탈락되기도 했다. 그 와중에서도 행사의 내실과 함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전시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여 현대미술 관련행사와 미술사적 의미를 갖는 전시행사의 균형을 고려했다.

<시각예술비평연구활성화사업지원>

총 39건이 신청된 본 사업은 13건을 지원결정 하였다. 심의에서는 미술비평담론의 지속적 확장을 위한 포럼 영역에 우선을 두고, 담론 확장 및 주제 개발에 관련된 영역에 큰 배점을 주었다. 가급적 연속지원을 지양했고, 신규로 진입하는 단체 대한 활로를 열어 본 지원 사업을 전문화·다변화·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포럼의 경우, 비평 활성화 사업을 지원 육성한다는 사업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단행본의 경우, 단순히 기 발표된 자료들을 뮤어내는 경우를 지양했고, 연구목적이 뚜렷한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평점을 주었다. 인터넷을 주된 장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향후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실질적 성과나 실효성을考量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시각예술분야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은 총 82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총 18건을 선정하였다.

심의는 신청 사업의 국제적 파급력, 교류대상과의 적절한 예산분담과 협력,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한 참여작가의 예술성과 신청단체의 기획역량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개인 작가의 해외 전시 참여의 경우 작가의 예술적 역량을 우선 고려하였으며 세부 장르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장르 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지원대상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2015년 진행되는 해외 주요 비엔날레, 아트페어, 페스티벌에 전시를 기획하여 참가하는 사업과, 해외 유수 미술관에 초청된 개인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국제적 파급력이 인정되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네트워킹을 통해 향후 연계성과가 기대되는 국제 총회, 포럼, 컨퍼런스 등의 국제행사에도 지원을 결정하였다.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시각예술분야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총 4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선정된 단체는 없었다.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는 2016~17년도의 본 사업 준비과정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본사업의 예상되는 국제적 파급력을 고려하였으나 신청단체의 적시적 사업 수행능력, 준비계획의 구체성 또한 중점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 심의에서는 지원대상을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시각예술분야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사업은 총 48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총 14건을 선정하였다.

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자의 예술적 역량을 심의의 중점적 기준으로 삼았다. 지원자의 역량 검토를 위해서 지원자가 사전에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레지던스 측에서 작가에게 제공하는 교류 조건이 탁월한 사업을 우선 고려하였으며, 지원신청서 검토를 통해 해당 레지던스에 참가하는 목적이 명확한 사업 또한 고려하였다. 반면 해외체류 중이거나 장기간 연속적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교류의 의미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배제하였다. 지원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레지던스 체류기간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였다.

<노마딕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금번 시각예술분야 노마딕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사업은 총 7건이 신청되었으며, 금번 1차 지원심의에서는 호주 노마딕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지원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심의는 기획자의 역량, 참여 작가의 프로그램 적격성, 프로젝트의 참신성과 구체성을 고루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획자의 작업계획과 참가작가의 작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참가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을 고려하여 총 1건을 선정하였다.

향후 프로젝트 기획의 구체성, 세밀한 현지 작업 계획, 기획의도에 맞는 다양한 작가군 구성을 위한 기획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각예술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무용분야

- 일시 : 2014. 12. 5(금) 16:00~19:00
- 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1실
- 심의위원 : 박성혜, 최해리, 오혜순, 박재홍, 최두혁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4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무용분과 지원심의위원회는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사업지원’,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등 총 4개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4개 유형 사업의 총 지원신청건수는 59건이었으며 지원신청 총액은 1,927백만 원이었다.

심사과정은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59건의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는 신청사업에 대한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전체적인 관점의 토론을 통하여 지원심의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각 채점을 하였고 채점결과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였다.

2. 사업유형별 심의평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사업지원>

총 11건의 신청 사업이 접수되었고, 이 중 6건을 선정하였다. 비평 활동의 안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한 대내외적인 관심 환기 여부를 선정 기준을 정하였다. 월간지 춤, 춤과사람들, 월간 몸은 한국무용계에서 무용전문 월간지로서의 순기능을 인정하여 지속지원을 결정하였으며, 올해 처음 신청한 월간 댄스포럼도 무용공연계의 리뷰 및 비평의 내용을 꾸준히싣고 있는 점을 인정하여 새롭게 지원을 결정하였다. 기존에 진행된 세미나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한국춤비평가협회 포럼’을 선정하였고, 한국춤평론가회에서 ‘조동화’선생님을 기리는 1주년 행사(세미나 및 책 발간)는 무용계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무용분야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사업은 총 33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11건을 선정하였다. 국제 무용 분야에서의 역할과 파급정도, 교류조건을 살펴 본 후, 우호적이면서도 상호 대등한 조건으로 교류되고 있는 사업인가를 검토하였다. 일례로 한국의 단체들의 일방적인 부담인 교류 사업은 배제 시켰다. 해당 단체나 개인의 예술적 역량과 실행가능성, 국내외의 파급효과까지 적극 고려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매년 지원받는 예술가보다는 기대되는 신규 지원자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번 년에도 특정 분야에서만 지원이 집중되어 분야별 선정이 고르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무용분야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사업은 총 4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1건을 선정하였다. 실질적인 중장기 기획 프로젝트로의 적합한 성격과 내용을 떠고 있는지를 고려한 뒤 해당 사업에 부적합한 성격의 지원의 단체는 배제하였다. 장기 프로젝트로서의 내용의 현실성, 예술적 안목과 명확한 비전 제시가 심의의 주요 기준이 되었으며, 이러한 원칙과 타당성을 기준으로 2016년 혹은 2017년 국제교류행사를 준비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의 내용의 충실성과 예측되는 성과를 적극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무용분야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사업은 총 7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3건이 선정되었다. 지원사업 중 레지던스 성격이라고 보기에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것들과 단순 워크숍 진행이라고 보여지는 사업들은 해당 지원사업 내용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배제하였다. 그리고 레지던스 주최 측이 제시하는 조건과 지원자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밝히는 예술적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을 선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문화예술 교류가 어려운 제 3세계 지역에서의 우호적 레지던스 프로젝트 역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추가적으로 선정하였다.

무용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음악 분야

- 일시 : 2014. 12. 8(월) 14:00~18:00
-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 집 세미나 1실
- 심의위원 : 최승한, 이민정, 김규태, 윤승현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5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음악분과 지원심의위원회는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사업지원’,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등 총 4개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4개 유형사업의 총 지원신청 건수는 62건이었으며 지원신청 총액은 2,166백만원이었다.

심사과정은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건의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는 신청사업에 대한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전체적인 관점의 토론을 통하여 지원심의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각 채점을 하였고 채점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였다.

2. 사업유형별 심의평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사업지원>

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사업 음악분야에는 총 8건이 지원 신청되었으며, 책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2건의 지원 대상 사업을 엄선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4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30%),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30%)를 심의기준으로 삼아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심의신청자(단체)의 현재 비평 활동과 전문지로서의 담론형성이 함께 진행 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연례적인 학회지 성격을 갖거나, 상업용 잡지 성격을 갖는 책은 공모에서 배제하였다. 지난 2014년 심의와 마찬가지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성과나 주최 측의 사업개선 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지원금을 축소하였다.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의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비평 연구 활동과 신진비평가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음악분야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은 총 51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총 13건을 선정하였다. 주요 심의기준으로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과 ‘예술적 우수성’,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였다.

사업을 검토하면서 예년에 비해 다양하고 훌륭한 국제예술교류 사업들이 많이 신청되어 선정하는데 많은 고심과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부족한 지원속에서도 지속적인 국제 교류 활동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단체가 예년에 비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사실은 한국 음악계에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사업계획에 있어서 지원자(지원단체)와 교류하는 해외 파트너 기관 모두가 예술적 역량과 국제적 인지도가 있고, 공연장소가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심의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신청한 프로젝트의 예술성이 뛰어나며, 교류사업이 성사되었을 경우 기대효과와 영향력을 함께 검토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논의를 한 결과 단순 개인 발표회 성격의 프로젝트, 교류대상국가 파트너 기관과의 사업예산 부담이 불균등하게 설정된 경우,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등의 사업은 제외하였다. 최종 선정된 13개 사업이 선도적이고 창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음악계의 국제예술 활성화에 기여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음악분야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총 2건이 신청되었다. 국제교류 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사업의 목적은 일회성 단기 프로젝트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계기 또는 거점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획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금번 지원심의를 통해 검토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사업이 없어서 선정하지 못하였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음악분야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 지원사업은 총 1건이 신청되었다. 동 사업 목적은 우리 예술가의 해외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하여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는 것인데 신청된 사업의 경우 본격적인 창작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축제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와 토론이 주로 이루어지는 성격이어서,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지 않았다.

음악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전통예술분야

- 일시 : 2013. 12. 18(목) 14:00~17:30
- 장소 :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세미나 2실
- 심의위원 : 김진이, 노복순, 윤명원, 이화동, 진옥섭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5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전통예술분과 지원심의위원회는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사업지원’,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노마딕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등 총 6개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5개 유형사업의 총 지원신청건수는 77건이였으며 지원신청 총액은 1,277백만원이었다.

심사과정은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건의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는 신청사업에 대한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전체적인 관점의 토론을 통하여 지원심의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각 채점을 하였고 채점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였다.

2. 사업유형별 심의평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사업지원>

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사업에는 총 6건이 지원 신청되었으며, 책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4건의 지원 대상 사업을 엄선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사업 계획의 충실했고 타당성(4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30%),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30%)를 심의기준으로 삼아 토론을 진행하였다.

공연 예술계의 비평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인만큼 그 동안의 지원 단체의 연구업적과 노력을 중요시 여겼으며, 신청단체가 많지 않은 만큼 전통예술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비평에 관여한 단체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전통예술분야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은 총 61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총 15건을 선정하였다. 주요 심의기준으로 ‘사업계획의 충실했고 타당성’과 ‘예술적 우수성’,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였다. 신청 사업의 추진 계획과 기대효과가 뚜렷한지, 신청단체(신청인)의 예술적 수월성과 역량 그리고 실행력이 높은지, 해외 파트너 단체와의 협업관계 및 교류조건이

합당한지, 향후 사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고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회의에서 면밀히 검토하였다. 아울러, 신청사업의 유형(페스티벌 참가, 공동제작, 네트워크 활동 등)과 세부 장르간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하였다.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전통예술분야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총 1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총 1건을 선정하였다. 신청사업의 내용이 해외 협력단체와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향후 전통예술분야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중점 논의하였다. 또한 사업의 준비상황, 세부추진계획의 구체성 등 프로젝트의 기획 전반에 걸쳐 접근전략과 방법론이 충실히,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인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아울러, 협력 파트너들의 신뢰도도 주요 심의 기준으로 하였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전통예술분야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사업은 총 2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총 1건을 선정하였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예술가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레지던스 활동을 통해 창작역량을 키울 수 있고 향후 활동이 기대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중점 논의하였다. 또한 참가하고자 하는 레지던스 기관의 국제적 인지도, 신청자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등도 함께 검토하였다.

<(기획형)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전통예술분야 기획형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사업은 총 2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총 1건을 선정하였다. 해외 협력 기관인 이탈리아 베니스의 카포스 카리대학교에서 요청한 전통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 및 논의하였다. 신청자의 활동실적과 추진력, 한국음악과 문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우리 음악의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하였다.

<노마딕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전통예술분야 노마딕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사업은 총 5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총 1건을 선정하였다. 몽골에서의 2주간의 레지던스 기간 동안 몽골 전통 음악 예술인들과의 협업의 목적이나 의지가 뚜렷한지,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참여 예술가들의 창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및 논의하였다. 또한 신청 예술인들이 그간의 국제교류 활동이 많고, 뛰어난 사업 수행과 예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하였다.

전통예술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다원예술분야

- 일시 : 2015. 1. 16(금) 10:00~17:00(1차)
2015. 1. 23(금) 10:00~17:00(2차)
- 장소 :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세미나 2실(1차) / 다목적실(2차)
- 심의위원 : 이경미, 이준, 조성주, 최연구, 하동환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5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다원예술분야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원예술창작지원’, ‘융복합예술창작지원’,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노마딕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등 총 7개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7개 유형사업의 총 지원신청건수는 256건이었으며 지원신청 총액은 10,684백만 원이었다.

심사과정은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건의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는 신청사업에 대한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전체적인 관점의 토론을 통하여 지원심의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각 채점을 하였고 채점결과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였다.

2. 사업유형별 심의평

<다원예술창작지원>

다원예술창작지원사업에는 총 194건이 지원 신청되었으며, 책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29건의 지원 대상 사업을 엄선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사업 계획의 충실했고 타당성(20%), 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실험성(3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25%),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과급효과(25%)를 심의기준으로 삼아 토론을 진행하였다.

총 194건의 신청 사업들은 소규모의 수행성 프로젝트부터 대형 축제에 이르기까지 성격과 규모면에서 각기 다른 특징들을 보이고 있었으며 공연이나 전시, 퍼포먼스, 출판에서부터 리서치, 기술 연구, 인체 연구, 커뮤니티 아츠, 장소특정적 예술 등의 유형 중 몇 가지를 결합하여 동시적·순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목표하는 관점과 주장을 담고 있었다. 그 결합의 방식들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서 신중한 검토와 종합적인 논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29개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국내의 다원예술 현장이 보다 활성화되어 각기 다른 의식과 태도들이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연결되고 교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융복합예술창작지원>

융복합예술창작지원 분야 심의는 융·복합형 예술의 담론생산과 창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통섭의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예술 활동 지원이라는 사업의 목적과 공모지원서 내용이 얼마나 부합되는가를 가장 우선적인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예술과 비예술 영역(인문사회, 과학기술 등)의 적극적인 융합적 예술 창작활동이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도 심의의 중요한 기준이었다.

여러 지원자들의 창의적 고민과 노력이 보였지만 지원 금액에 비해 높지 않은 융합적 기술수준,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내용에 대한 중복, 그리고 아이디어에 비해 실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추후 구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등 여러 보완점들이 심의 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사업의 의도나 성과가 다원성 및 융복합 사업으로서의 설득력이 충분한 지원신청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공모에 응한 사업은 크게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체가 의심되거나, 비록 기술적으로는 실현성이 있다할지라도 제작의 수준에 머물 뿐 미학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경우로 나뉘어졌다.

심의위원들 사이에서 오랜 의견이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나 형태를 떠나 본 사업이 지향하는 바를 모두 충족시키는 사업을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아쉽게도 2015년 융복합예술창작지원사업의 해당자는 없음을 밝힌다.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총 19건이 지원 신청되었으며, 심의회의를 통해 총 6건의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였다. 국내 예술인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는 현장의 경향을 반영하듯 이번 신청 사업들에서 다각적인 시도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신청 사업들의 실험성과 예술적 진지함, 신청 예술가와 단체가 보유한 예술적 역량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술에 대한 기존 담론과 경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예술의 지평을 개척하기에 손색 없는 사업들이 많다고 보았다.

심의에 있어서 주안점으로 삼은 것은 다원예술로서의 설득력과 예술형식으로서의 참신함, 해외 파트너의 전문성, 신청 예술인의 수행능력 및 예술적 수월성, 국내 해당 분야에서의 선정 사업의 기대성과 등이었다. 특히, 신청자의 기존 작업들이 일정 정도 내적인 연관성을 갖고 생산적인 발전의 경로를 밟아왔는지 살펴보았으며, 해외 파트너들이 단순한 장소 제공자나 형식적 협업자가 아니라, 신청자와 대등한 파트너십을 이루며 신청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신청 사업의 주제 및 내용이 예술적으로 얼마나 새로운지 살펴보았고, 피상적인 장르 연계성 프로젝트나 홍보성, 전시성이 짙은 사업, 국제민간교류지원 사업에

예술성을 가미한 정도의 사업은 배제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예술가들의 작업이 보다 다양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지평을 넓히기를 기대하며 지역적 안배 또한 고려하였다.

<국제교류증기기획프로젝트지원>

총 6건의 신청된 사업 중 계획의 참신성, 충실성, 기대성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2건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두 사업안은 사업을 주도해 갈 작가 및 기획자, 그리고 협력자들의 수행역량과 기획 방향에 대해 신뢰가 가는 사업안이라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전체 사업 계획이 각 연차별로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지, 다음 년도에 수행할 사업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심의 기준으로 삼았다. 2년차로 진입한 사업들의 경우, 1년차의 사업과정 및 성과, 첫해의 시행착오에 대한 대안제시 등을 바탕으로 2차년도 지속 지원 여부에 대해 심의위원 간의 토론을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금번의 공모사업에서는 신청인이 추구하는 작업과 레지던스 기관의 상관 관계 및 계획의 충실성, 참신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아쉽게도 총 5건의 신청 사업 중 1건의 사업만을 선정하였다. 심사 기준으로는 첫째,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의 애초 목표가 구체적인가, 둘째,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 흡수해서 과정적으로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 있는지, 아울러 해당 레지던시가 본 작업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사업의 기간 동안 해당지역의 예술가 및 예술작업과 상호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 넷째, 신청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예술적인 결과물은 어느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다원예술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공연예술행사지원

<연극분야>

- 일시 : 2015. 1. 15(목) 15:00~17:30
- 장소 :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세미나 2실
- 심의위원 : 백로라, 서재형, 송전, 정명주, 조광화

<무용분야>

- 일시 : 2015. 1. 13(화) 15:00~18:00
- 장소 :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세미나 2실
- 심의위원 : 박재홍, 박성혜, 오혜순, 최두혁, 최해리

<음악분야>

- 일시 : 2015. 1. 14(수) 14:00~17:00
- 장소 :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세미나 2실
- 심의위원 : 김규태, 윤승현, 이민정

<전통예술분야>

- 일시 : 2015. 1. 9(금) 14:00~17:00
- 장소 :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세미나 2실
- 심의위원 : 김진이, 노복순, 윤명원, 이화동, 진옥섭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은 총 132건이 지원 신청되었으며, 분야별(연극, 무용, 음악, 전통)책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39건의 지원 대상 사업을 엄선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 회의에서 위원들간의 전체적인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나눈 뒤, 개별채점을 통해 사업을 선정하였다.

먼저,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모요강에서 공고한 바와 같이 최소 2년 이상 개최 실적이 있는 전국규모의 공연예술행사를 심의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여기에 지역을 거점으로 하되 참여예술단체 및 향유층의 범위가 전국 규모인 행사, 직전년도 미지원 단체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등의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고자 했다. 또한 지원대상의 균점화를 위해 지역별, 세부 분야별 안배를 고려하였으며 기존 지원사업의 경우 '13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50%, '15년도 사업계획을 50%를 반영하여 전체적인 틀에서 심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공연예술행사인만큼 독창적이며 예술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사업의 지속성과 차별성은 갖추었는지, 실현 가능성과 조직의 수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지, 향후 사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고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였다.

채점은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4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30%),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30%)를 살펴 최대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분야별 선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극분야 -

연극의 경우 성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엄선하였다. 접수된 35건의 사업 중 기준지원사업이 15건, 신규지원사업은 20건이었다. 기존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의 경우 2013년 평가결과를 50%, 2015년 계획을 50% 반영하여 계속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하였으며, 2014년도 동 사업으로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100% 반영하였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평가가 저조한 사업은 제외하였으며, 행사성격, 장르,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신규사업을 3건 선정하였다.

올해의 경우 본 사업의 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본 공모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일회성 성격의 행사나 최소 2년간 연례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는 기본 요건에 미달한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기존 지원 단체의 경우, 축제 운영이나 기획 면에서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개선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고민해야하는 점이 보였다. 다른 축제와 차별화된 레퍼토리를 개발하여, 전국 규모의 연극 분야 공연예술행사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수준 높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 무용분야 -

무용분야의 경우 총 23건의 사업이 접수되었고, 지원자격조건이 미달되는 6건을 제외한 17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총 10건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행사의 형태(경연/축제 등), 장르, 지역의 고른 안배를 고려하였고, 본 지원사업의 고착화를 지향하고자 신규사업 4건을 선정하였다. 기존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의 경우 2013년 평가결과를 50%, 2015년 계획을 50% 반영하여 계속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하였다.

평가결과 환류에 따라 창무국제무용제는 '우수'등급을 받아 전년대비 지원액을 증액하였으며, 한국을 빛내는 해외무용스타 초청 공연과 젊은 안무자 창작공연의 경우 사업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동안 무용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하여 지속지원으로 결정하였다. 코리아국제무용콩쿠르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제기되었으나 남성무용수의 현실을 고려, 대안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지속지원을 결정하였다. 그 외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사업 몇 개는 선정에서 제외시켰다.

생생춤페스티벌은 작년도에 첫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사업이 개선되고 있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을 결정하였다. 신규사업으로 지역에서 젊은 무용수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가치를 인정하여 New Dance Festival과 부산에서 아시아지역 교류 중심의 무용행사로서 지역 무용계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산국제춤마켓을 지원결정하였다. 크리틱스 초이스는 전년도 사업운영에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20-30대 안무자들의 발굴과 공연기회 제공이라는 취지를 인정하여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K-ballet world와 우리춤축제는 세부장르의 활성화 가치를 인정하여 지원을 결정하였다.

- 음악분야 -

음악분야의 경우에는 총 45건이 지원 신청되었으며 책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7건의 지원 대상 사업을 엄선하였다. 기존 지원 사업의 경우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은 지원금을 증액하였고 계속해서 평가가 저조한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선정 사업별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원조건을 달았다. 무엇보다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의 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신규 사업, 지역 거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 공모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일회성 성격의 행사나 최소 2년간 연례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는 기본 요건에 미달한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콩쿠르 사업도 점차 지원을 줄여나가기로 결정했다.

- 전통예술분야 -

전통예술분야는 총 29건이 지원접수 되었으며 이 중 8건을 선정하였다. 사업공모요강에서 사전에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개최실적이 없는 행사 15건은 심의대상에서 제외었다. 올해에는 사업 선정에 있어 지역안배와 장르균형, 신규사업 발굴, 기존 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이라는 4가지에 중점을 두어 심의를 하였다. 우선 풍물의 경우 기존에 지원받던 호남지역 임실필봉마을굿축제와 '13년도에 신규 발굴 지원한 영남지역의 전국농악대축제에 이어 올해에는 경기도 지역의 '대한민국 무형문화제 <세계의 멋 한국의 흥>'를 신규 발굴 지원하여 전국 규모 풍물축제의 지역 안배 및 균형을 이루고자 하였다. 아울러 풍물에 치우친 장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용부문에서는 '국제2인무 페스티벌' 사업을 신규 지원결정하였고, 국악 부문에서는 기존에 지원받던 대한민국국악제에 이어 '북촌우리

음악축제'을 신규 발굴 지원하게 되었다. 민속분야는 '을미년 만날제'를 신규 발굴 지원하였다. 기존 지원 사업 중 '광주예술난장 <굿+판>'의 경우에는 지역민의 호응도가 높은 점이 장점이나 전통예술의 비중이 부족한 종합축제의 성격을 떠므로 '15년도 사업추진 시에는 전통분야 예술가의 참여 및 프로그램 구성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액 결정에 있어 기존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가 평가결과에 따라 점수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를 하였으며, 우수 결과 사업은 전년도 사업비에 준하는 지원액을 결정하였다.

공연예술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문학분야>

- 일시 : 2014. 12. 22(월) 10:00~12:00
-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회의실
- 심의위원 : 권지예, 김기택, 유홍준, 이남호, 하웅백

<시각예술분야>

- 일시 : 2014. 12. 17(수) 10:00~22:00
-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 집 다목적실
- 심의위원 : 고충환, 김성연, 심상용, 양정무, 정귀원

<전통예술분야>

- 일시 : 2014. 12. 18(목) 14:00~17:00
-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 집 세미나실 2
- 심의위원 : 김진이, 노복순, 윤명원, 이화동, 진옥섭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문학분야>

문학 분야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사업은 총 17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6건을 선정했다. 주요 심의기준으로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성공적인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 '기여도와 파급효과'를 고려했다. 지원자의 문학적 역량과 그 위상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어소통 능력을 토대로 파견 기관 및 파견 지역의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원자의 막연한 목적의식을 배제하고, 좀 더 구체적이며 현실 가능한 참가 의도를 갖고 있는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그 결과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러시아 사할린 한국어교육원·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교·쿠바 호세마르띠 문화원·주스웨덴한국대사관 협력 레지던시에 파견할 작가를 선정했다.

문화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시각예술분야>

시각예술분야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사업은 총 45건이 신청되었으며, 금번 1차 지원심의에서는 독일 베타니엔 스튜디오 참가 지원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베타니엔 스튜디오 참가의 경우 현지 기관과 예술위의 협약에 따라 예술위 측에서 1차 심의를 진행하여 일정 수의 후보를 선정하고, 이들의 영문 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심의를 통해 베타니엔 측에서 최종 1인을 선정하게 된다. 이번 심의에는 독일 베타니엔 스튜디오 참가 1차 후보군 6명을 선정하였다.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지원 심사는 예술적 역량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후보군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책임심의위원 전원은 작가가 제출한 포트폴리오 및 지원신청서를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현지 파견시 높은 성과가 기대되는 역량 있는 작가를 후보군으로 선정하였다.

시각예술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전통예술분야>

전통예술분야 기획형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사업은 총 2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총 1건을 선정하였다. 해외 협력 기관인 이탈리아 베니스의 카포스카리대학교에서 요청한 전통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 및 논의하였다. 신청자의 활동실적과 추진력, 한국음악과 문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우리 음악의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하였다.

전통예술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